‘불교 사관생도’ 인식·처우↑, MZ세대 잡아라

[기획] 군승 파송 절벽 다가온다

② 군종사관후보생, 활성화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승 수급에 있어 군종사관후보생 제도는 파송제도 도입 이후 주요한 역할을 했다. 국방부 군종실 군종사관후보생 응시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불교군종사관후보생 최종합격자는 36명이었다. 군승 자원 중 연평균 3~4명은 군종사관후보생 제도를 통해 충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응시자는 더욱 많아, 경쟁을 통한 우수자원 선발에 큰 역할을 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응시자는 111명으로 최종합격자 대비 3: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군종사관후보생은 국방부가 지정한 동국대 서울, WISE 캠퍼스와 중앙승가대 등 3개 종립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응시자를 모집한다. 1학년과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서류심사 후 국어, 국사, 윤리, 사회, 영어 등 필기시험과 조직 및 직무역량 면접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가 가려진다.

2009년 변화, 2015년부터 급감

군종사관후보생 제도의 1차적인 변화는 군승법사의 독신예외를 담은 조계종 종헌 9조 2항 삭제 등이 이뤄진 2009년 감지된다. 2009년에는 이와 함께 응시자격 대상 학년을 1학년 선발에서 2학년 선발로 변경했다. 2009년 응시자가 2010년도 시험을 보게 되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5년간 응시자는 63명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응시자는 48명으로 감소했다.

독신 강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수십 년간 민간에서

일반인 지원 전무한 상황
독신강제·장학 이점없어
선발시 출가에 지원 급감

군포교를 하고 있는 박호석 前대한불교삼보회 이사장은 “독신 여부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예전만해도 지원자가 많았지만 현재 일반인들의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이 아주 없는 것은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재가자 입장에서는 독신비구 정체성 강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독신 여부가 후보생 지원 감소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종사관후보생은 2015년부터



군승 파송인원 급감의 주된 요인으로 군종사관후보생 ‘제로(0)’ 사태가 꼽히고 있다. 사진은 2017년도 군승 임관 고불식.

2022년까지 7년간에는 응시자가 12명으로 급감했다. 설문조사에서 익명을 요구한 군승법사들은 “비혼 성향이 많은 MZ세대를 보면 후보생 감소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3대 군종특별교구에서 승려 정체성 강화와 교육 체계화 일환으로 후보생 시험 합격 후 2학년 2학기 출가를 공지했다”며 “후보생 대부분이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본 후 학교를 다니며 깊게 고민하고 출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출가해야 한다고 하니 부담감에 시험 응시가 끊겼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복구된 상태지만 선후배간 후보생 권유, 정보취득 흐름이 끊어지며 일반 학생들 사이에선 ‘군종사관후보생’ 개념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병역 해결’ 선택지서 인기 감소

최근 병역제도의 변화로 군종사관후보생으로의 이점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월급 200만원’ 공약에서 나타나듯 국방부는 병사월급을 급격히 올리고 있다. 여기에 사병 복무기간도 현재 육군 기준 18개월로 군종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기간인 36개월에 비해 매우 짧다. 같은 이유로 비슷한 제도인 학군단(Rotc)도 4년 전에 비해 40%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립학교 내에서의 실질적인 이점도 부족하다.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 일정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장학금 70%가 지원된다. 불교대학 내에 장학제도가 부실했던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이점이었지만 불교대학 장학제도 활성화로 이러한 이점이 사라졌다.

이러한 연유로 군종특별교구가 5월 18일 진행한 군종사관후보생 설명회에는 재가학생 참여가 거의 없었다. 불교대학 측 협조를 통해 진행한 설명회에는 총 12명의 학생들이 설명을 들었지만 재가학생들은 4명에 불과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김준우 동국대 불교대학 학생회장은 “학과 내에서 사실 군종사관후보생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없다. 1년 6개월 과정의 일반사병이나 군종병으로의 복무를 대부분 염두하고 있다”며 “병역 이수를 빠르게 하고 사회 진출, 취업 준비를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선후배 모임 복원과 지원에
복무시 종립기관 채용 우대
불교인재 육성 창구도 활용

익명을 요구한 J군승법사는 “ROTC의 경우 취업우대 등이 있지만 군종사관후보생은 전무하다. 예전 군법사가 단기 전역 후 생계수단을 강구하는 모습 많이 보았다”며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중앙승가대에서 진행하는 유니출가와 같이 단기출가 개념으로 종단 방침에 따라 군승으로서 복무 후에 종립기관이나 대학, 사찰에서 재가자로 근무하는 등 연계과정도 고민할 만하다”고 말했다.

‘불교 사관생도’로 인식 제고

전반적인 군종사관후보생 제도에 대한 관심 하락이 군승요원 지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군종사관후보생인 동기, 선후배들을 보며 접할 수 있었던 ‘군승’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나 정보 취득이 군승요원의 지원 계기였다는 지적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을 나온 도원 고태호 군승법사는 “여러 출가 계기가 있지만, 주변 형제, 도반들을 보며 발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창시절 군종사관후보생 등으로 군승에 대해 접하고 출가까지 발심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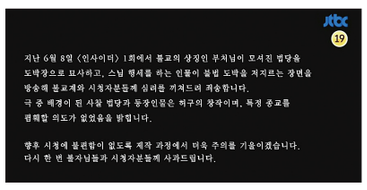
결국 후보생들이 소멸하면서 학교 내에서 자연스럽게 군승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 기회도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고 법사는 “동국대 재가학생이 졸업 후 출가, 군승요원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동국대 불교대학 등에 요청하여 스터디모임 지원을 통해 군종사관후보생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종특별교구 포교국장 경진 김헌철 군승법사는 “군승 수급뿐만 아니라 군포교, 더 나아가 불교 인재를 키워낸다는 개념에서 일반학생들이 군포교를 접하고, 불교에 귀의해 출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불교 폄훼 방송’ JTBC, 조계종에 사과

6월 15일, ‘인사이더’ 3화 사과문
문제 영상 삭제·서비스 중단도



JTBC 사과문

부처님이 모셔진 사찰법당을 도박장으로 표현한 장면을 담은 드라마를 방송해 물의를 빚은 JTBC가 드라마 시작 전 사과문을 송출하고 조계종과 약속한 사과를 이행했다.

JTBC는 6월 15일, 논란이 일었던 드라마 ‘인사이더’ 3회 방영 전 송출한 사과문에서 “6월 8일 1회에서 불교 상징인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을 도박장으로 묘사하고 스님 행세를 하는 인물이 불법 도박을 저지르는 장면을 발표해 시청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극중 배경이 된 사찰 법당과 등장인물은 허구의 창작이며 특정 종교를 폄훼할 의도가 없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JTBC는 또 공식입장에서 “특정 종교나 단체를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배경 장소나 등장인물이 종교적 오해 또는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 편집 및 재입고 방안 등을 조계종 측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회와 4회 방송에 사과 입장문을 반영하고 다시보기 서비스와 동영상 클립은 해당 장면의 삭제 및 편집 후 재입고(서비스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청와대 석조여래좌상에서 진행된 예불. 사진제공=조계사

조계사, 청와대 석조여래부처님 참배

6월 14일 예불 등 예경의식도

새 정부의 청와대 개방으로 대중에 공개된 석조여래좌상(미남불)에서 예불의식이 거행됐다. 조계사(주지 지현)는 6월 14일 청와대를 찾아 석조여래좌상을 친견했다.

청와대 미남불에서 대중예불이 진행된 것은 1948년 대통령 관저로 청와대가 문을 연 지 74년만에 처음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신도 30여명은 부처님전에 공양물을 올리고 사시예불을 진행하는 등 잊혀졌던 부처님을 향한 예경의식도 함께 봉행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9기 환경위 구성…위원장 묘장 스님

조계종, 6월16일 16명 위촉



사찰 수행환경 보존과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주요 환경 현안을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조계종 9기 환경위원회가 출범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6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9기 환경위원회 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장에는 묘장 스님이 선임됐다.<사진>

이날 위촉된 위원 16명 가운데 위촉직 위원은 13명이다. 특히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불교생태학, 사찰 수행환경 보존, 사찰림 및 국립공원 가치평가, 환경 및 기후위기 활동가 등 9명의 위원이 신규 위촉됐다.

학도암 주지 묘장 스님, 전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법일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서재영 성균관대 유학동양철학과 초빙교수,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홍석화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장영기 수원대 대기공학과 교수, 조계중 순천대 산림자원조경학부 교수, 윤주옥 자연과공생연구소 대표, 조시경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교 교수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창립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창립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전국여성불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불기 2566(2022)년 6월 23일(목) 오후 3시
장 소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주 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설립추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설립추진위원장 범 해